

12. 혼돈의 시대를 밝힌 촛불시민혁명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세계혁명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 수명이 다해가면서 세계는 대안 없는 혼돈의 시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했던 미국과 영국은 가장 먼저 세계화 흐름에서 발을 빼고 있다. 유럽연합을 주도해 왔던 독일과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좌파 블록을 형성하며 새로운 실험을 했던 중남미 나라들과 민주화의 봄 릴레이를 달렸던 중동 나라들 모두 혼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미래지향적 흐름을 보여준 것은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이었다. 촛불시민혁명은 지난한 역사를 거치며 새로운 미래를 잉태한 사건이었다. 세계혁명 역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도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과연 촛불시민혁명 속에 담긴 과거와 미래는 어떤 것인가?

엘리트주의의 파산

한국현대사 저변에서 작동했던 중요한 프레임은 시민주의 대 엘리트주의였다. 시민주의와 엘리트주의 투쟁의 역사였다. 시민주의 핵심 요지는 이렇다. 역사 향배를 좌우하는 순간에 시민들은 무대 한복판에 자발적으로 진출해 국면을 돌파했다. 시민들은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은 세상을 바꾸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주체로 성장해 왔다.

시민주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엘리트주의'이다. 엘리트주의는 시민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엘리트 그룹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며, 시민은 리더십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엘리트주의는 일찌감치 파산했다. 해방에서 분단,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는 바로 엘리트주의가 파산하는 과정이었다.

1945년 미·소·영 3국 외상이 주도 아래 한반도 문제 처리 방안을 담은 모스크바삼상결정을 발표했다. 민초들은 강대국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임의로 다루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하지만 남로당 중심의 좌익 세력과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 세력은 삼상결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갈려 극심하게 대립했다. 그러는 사이 친일파들은 즉시 독립을 외치며 빠르게 입지를 회복해 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친일 민족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민초들은 친일파를 제압할 절호의 기회로 열광적인 지지와 환호를 보냈다. 하지만 좌익 세력은 이승만 정권 내부 일로 간주하고 방관했다. 약점을 간파한 이승만과 친일파는 반민특위를 파괴한 뒤 여세를 몰아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를 강제해산 시켰으며 반정부 인사 12만 명을 처형했다.

1950년 5월 30일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남로당 중앙은 ‘망국적인 5·30단독선거를 파탄시켜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인 민초는 거의 없었다. 민초들은 전세를 뒤집을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적극 투표에 참여해 중도 진보 성향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결과는 이승만의 참패로 나타났다. 당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승만 실각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민초들은 5·30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 뒤 친일파를 제거함과 동시에 남북협상을 추진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 모든 꿈은 한 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하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한국전쟁을 주도한 인물은 엘리트주의 화신이기도 했던 남로당 총책 박헌영이었다. 박헌영은 인민군이 진주하면 남로당 20만 당원을 주축으로 민중봉기가 일어남으로써 승리를 쉽게 확정지을 수 있다며 북한 수뇌부를 설득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끔찍한 희생과 함께 분단을 고착화 장기화시켰을 뿐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초들 사이에서는 지도 엘리트들을 쉽게 믿지 않는 잠재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도 엘리트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민주의가 태동했다.

시민주의 전성시대

여기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한 존재가 있었다. 그 어떤 뛰어난 지도자나 그룹도 그보다 위대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수십만 명 사람들이 (어쩌면 수백만 명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 존재의 지도를 받아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깨달았다. 일상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과제 수행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다. 때로는 죽음도 불사해야 할 만큼 고난이 뒤를 따랐으나 기꺼이 이를 감수했다.

그 위대한 존재는 5.18광주시민이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주역이었던 이들 시민

만큼 우리 역사에서 강력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지도력을 발휘한 존재는 여간해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18광주시민의 준엄한 모습 앞에 기꺼이 자신을 복종시키려 했던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18광주시민이 던진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 실현을 위해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 리더십의 절정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후 시민 리더십을 내면화한 수많은 활동가들이 민주화대장정의 격랑을 헤쳐 나갔다. 1987년 민주화대장정은 승리의 봉우리에 올라섰다. 이어진 6월민주항쟁은 시민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높은 수준에서 발현되었다. 시민 리더십을 가장 먼저 체화하고 행동을 나선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6월민주항쟁 열기가 채 가시도 전에 7.8.9월 노동자대투쟁이 폭발했다. 그 결과를 짧은 기간 안에 1200여 개 민주노조가 탄생했다. 한 번 폭발한 노동운동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다. 노동운동은 한국사회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노동,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운동이 폭발적 성장을 거듭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6월민주항쟁을 거쳐 시민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역사에서 시민주의가 승리를 구가하며 활짝 꽃을 피웠던 시절이었다. 이를 입증하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7.8.9월 노동자대투쟁 모두 시민들이 자발적 판단과 선택, 결심이 만들어낸 역사였다.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이끈 소수 엘리트 집단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활동가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시민의 자발적 진출을 도왔을 뿐이었다.

둘째, 결정적 순간마다 시민들은 시대의 과제를 담은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높은 리더십을 발휘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던진 메시지는 “두려워 말고 독재에 맞서 싸워라!”였다. 가장 빠르고도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학생운동이었으며 이후 민주화 세력 전체가 이를 가슴으로 받아 안았다. 6월민주항쟁이 던진 메시지는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라!”였다. 가장 빠르고도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노동자들이었으며 이후 시민사회운동 전체가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품었다.

셋째, 일련의 국면을 거치면서 시민 스스로 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해 갔다. 4월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시민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5.16군사쿠데타 앞에서 저항을 포기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군부세력에 맞서 저항했다. 하지만 당시 광주는 고립된 채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야 했다. 6월민주항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5.18광주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지역적 고립을 완전 극복했다. 이로서 한 국면을 넘어선 시민들은 시민사회운동 활성화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해 갔다.

엘리트주의에 오염되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신자유주의 상륙은 과거 군사쿠데타 못지않은 중대 사건이었다. 마땅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6월민주항쟁과 같은 시민 리더십을 발휘할 강력한 집단 행동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시민 리더십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그 여파로 길게는 외환

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시민주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던진 “두려워말고 독재에 맞서 싸워라!”, 6월민주항쟁이 던진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라!”처럼 일관되게 시민들 가슴을 달굴 메시지도 없었다.

외환위기라는 중대 사건을 겪으면서 시민주의가 실종된 것은 한국현대사에서 커다란 의문 부호를 남기는 지점이다. 6월민주항쟁 이후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었던 시민사회운동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시민 주체들을 훈련시켰다. 이들 시민 주체들은 외환위기를 맞이해 시민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외환위기가 시민 주체 교체가 일어나는 과도기에 발생했다는 가설이다. 요컨대 기존 시민 주체는 엘리트주의에 오염되면서 기득권 세력에 가까워져 갔지만 새로운 시민 주체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 시민 리더십 발휘가 객관적으로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이다.

1987년 민주화투쟁이 승리하면서 국면이 바뀌자 그 주역이었던 86세대 다수는 저항의 시대에서 점령의 시대로 전환했다. 이들을 지배했던 것은 이른바 ‘고지론’이었다. 고지는 기존 질서 안에 존재하는 상층부였다. 자신이 지위를 갖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고지를 점령하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점령을 위한 사투 과정에서 86세대는 시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그들이 더욱 더 믿고 의지했던 것은 시민이 아니라 지위와 권력 그리고 돈이었다. 여기에 자기 능력을 더하면 세상을 바꿀 힘이 나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점령 과정에서 기존 문법만을 따라하며 그나마 품고 있던 상상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정작 원했던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위와 권력, 돈에 나의 능력을 결합시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엘리트주의의 전형이었다. 한 때 5.18광주시민의 리더십에 자신을 의탁하면서 엘리트주의를 경멸했던 86세대는 그런 식으로 엘리트주의에 오염되어 갔다. 과거 자신들이 귀의했던 시민주의를 배신한 것이다.

민주화투쟁 승리 이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86세대 대부분 승리의 과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너도 나도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엘리트주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 자신은 끝내 기득권 세력에 포섭되면서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존재인 시민들을 아웃사이드로 밀어냈다.

시민주의의 화려한 부활, 촛불시민혁명

외환위기를 거치며 그 때까지 흐름을 주도했던 시민 주체들은 기득권 세력에 한층 가까워져 갔다. 반면 새로운 시민 주체 출현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주의의 힘을 잃었고 대신 엘리트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시민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외환위기 이후 10년은 암흑의 시대였다.

긴 터널을 지나 2008년에 이르러야 새로운 시민 주체 출현을 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다. 촛불시

위를 주도한 것은 기존 시민사회운동과 무관한 10~30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전혀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전혀 새로운 시민 주체였다. 이 사실은 2008년 촛불시위 문화가 보여준 뚜렷한 차이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노동계 집회는 소속 노조 여부에 따라 참가자 경계선이 뚜렷했다.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에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 안내에 따라 통일(확일?)적으로 움직였다. 반면 2008년 촛불집회는 경계선이 없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완전 개방형 집회였다. 어떤 위계질서도 허용하지 않았다. 참가자 관계는 철저하게 수평적이었다. 국회의원이든 중학생이든 모두 촛불의 한명으로 간주되었다. 각자 행위는 각자가 기획해서 연출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극대화된 시위였다. 이는 곧 2008년 촛불시위가 지도부와 대중,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상당 정도 넘어선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시위대 모두가 기획 주체였고 자신을 이끈 지도부였던 것이다.

2008년 촛불시위는 당사자들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트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청년들은 그 어떤 위계질서로 용납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수평적 관계를 추구했다. 수평적 관계에서 엘리트주의가 자리 잡을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2008년 촛불시위가 마무리되면서 청년들은 일상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긴 시간을 거치면서 청년들 의식은 부단히 성숙되어 갔다. 2013년 12월 철도파업은 이를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철도 노조는 SRT노선 자회사 분리를 철도 민영화 일환으로 간주하고 파업을 단행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3일간 지속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20~30대 청년들 66퍼센트가 지지를 보냈다.

오랜 에너지 축적 과정을 거며 2016년 촛불시민혁명이 폭발했다. 촛불시민혁명은 2008년 촛불시위 특성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청년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확립된 것이었다.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것은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자발적 시민들이었다. 시민주의가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시민들은 촛불시민혁명 전개 방식을 좌우하는데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시민들은 비폭력 평화집회를 고수했다. 덕분에 집회 참여에 두려움을 느끼던 사람들이 부담 없이 대거 합류할 수 있었다. 비폭력 평화집회가 펼쳐낸 갖가지 장면은 다수 국민들을 감동시키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도록 만들었다. 시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말하자면 시민들이 정치권 움직임을 선도한 것이다. 정치권이 줄곧 촛불시민혁명을 주도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음을 입증했다. 정치권은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는데서 언제나 시민들보다 한 걸음 느렸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흐름을 선도하면 뒤늦게 이를 수궁하고 따라갔다. 시민들은 시대의 방향과 과제를 제기하는 데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촛불시민혁명이 던진 메시지는 “세상을 수평하게 바꿔라!”였다.

촛불시민혁명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수평성이다. 개방성과 다양성은 수평성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진입 장벽이 제거된 개방적 환경에서만 수평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환경에서만 수평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은 시민들이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수직적 위계질서에 맞서 투쟁한 사건이었다. 박근혜 탄핵은 권력의 위계질서 정점을 타격함으로써 위계질서 자체를 허물기 위한 시도였다. 수평이 수직을 이긴 사건이었다.

새로운 미래의 태동

촛불시민혁명은 시민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세상을 수평하게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회 여러 영역에서 기존 수직적 위계질서를 수평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될 때 어떤 질적 변화가 일어날까? 수직적 위계질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층부를 구성하는 소수뿐이다. 대다수는 주변적 존재로 전락한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각자가 중심이다. 각자가 중심이라는 것은 각자가 목적이고 조직의 중심이며 권력 행사 주체라는 것이다. 이 원리가 경영 영역에 적용되면 사람 중심 경제가 된다. 자본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기존 경제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태동할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촛불시위부터 촛불시민혁명을 주도한 청년 세대는 강한 수평 지향성을 품고 있다. 이는 곧 청년 세대 안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풍부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지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앞으로 새사연이 하고자 하는 일이기도 하다. 